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옥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국교(國敎)가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국민은 누구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하여 종교문제가 쉽고 편안한 일일까?

전통시대에 도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기존의 종교와 부딪치면서 사단이 일어났다. 불교가 신라사회에 들어올 때도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도 천주교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같은 사건을 천주교에서는 박해(迫害)라고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사육(弒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가정의 달에 종교를 돌아본다

그 후에 기독교도 들어와 우리 사회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종교지도도를 갖게 되었다. 그 외에 대종교나 천도교 등 민족종교도 존재하지만 교세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종교, 그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사람은 무교(無敎)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교라고 하는 편이 맞다. 왜냐하면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 제의인 제사를 지내고,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지도를 가진 만큼 문제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정의례문제이다.

가정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의례가 제사이다. 제사는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유교적 제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린 것은 조선 후기이다. 신분을 불문하고 제사는 효도의 구현으로 제사 안 지내는 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 팔아 제사 비용을 마련한다거나 무엇에 쫓돌리는 상황을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종교가 다양화된 현대도 제사는 제일 큰 가정의 행사이고, 친척간의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시화 되고, 핵가족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척들이 모일 공간이 부족하고, 직장생활을 하므로 제사시간을 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으며, 특히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게 되었다.

전통시대는 농경사회였고 마을 중심으로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도 터져 있어서 마당에서라도 자리 깔고 지내면 된 것이다. 제물 준비도 친척들이 모여 다 함께 준비하면서 축제분위기까지 있었다. 제삿날이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풍성한 제사를 기획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 빼는 일이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가 된 시대다. 잠자지 직전에 제사 지내고, 음복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다. 제물을 약소하게 차리면 조상님께 죄송하고 많이 차리는 것은 과소비가 되는 이율배반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제사음식을 버리는 일까지 생겨나고, 어차피 먹지도 않는 제사음식 예뻐 만들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주문하여 제사 지내자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현대 정상이 빠진 제사는 허례가 되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맏아들 우월증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

는 따로 없는데 제사, 부모님 모시기 등의 무만 남아서 맏아들은 물론 맏며느리를 옥죄는 사슬이 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이민간 사람들 중에 맏아들, 맏며느리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제 제사는 조상님을 정성껏 모시고 추모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후손에게 짐이 되는 허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가정의례 존치를 만들어 국가에서 간편화 작업도 했지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옛날부터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집마다 제물이 조금씩 다르고, 제사법도 조금씩 차별성이 있는 법도가 전승되면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데다 종교생활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자신의 종교에 맞는 제의를 행하면 되고, 이중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사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종교 창시자들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원대한 뜻을 품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며 구도의 길을 걸어 마침내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그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족적을 보여준 위대한 스승들이다. 그분들의 경유하는 길은 달랐지만 목적지는 같았다고 생각한다.

의료칼럼

턱에도 디스크가!



안종모 조선대 치과병원장

턱에도 디스크가!

할을 한다. 턱근육은 턱에 부착돼 있으면서 턱을 움직이게 하고 턱의 위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턱관절과 턱근육은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의 병과 턱근육의 병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서로 별개로 발생하기도 한다.

턱관절의 병으로는 관절원관장애, 관절염, 탈구, 강직 등이 있다. 관절원관장애란 턱관절 속에 들어있는 원관(디스크)이 제 위치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관절원관장애의 발생 초기에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관절에서 달걀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하지만 점차 진행됨에 따라 가끔씩 턱이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더 많이 진행되면 갑자기 입을 벌이지 않으면서 턱관절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이 아프고 음식을 씹거나 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

사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난다.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턱관절의 강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입이 잘 안 벌어져서 음식을 섭취가 어려워진다.

턱근육의 병으로는 근긴장, 근막통, 근염, 근경련, 근경축 등이 있다. 턱근육의 병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턱근육의 통증 때문에 입을 벌리거나 음식물을 씹는 것이 불편해진다. 턱근육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목, 어깨의 통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근긴장이나 근막통은 근육 피로가 누적됐을 때 생기기며, 근염은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 그리고 근경련은 중추성 원인이거나 전해질 대사의 장애가 있을 때 잘 발생한다.

턱관절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턱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인자로 작용한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너무 즐겨먹거나 앞니로 손톱이나 어떤 물체를 물어뜯거나, 스트레

스와 관련돼 평소 이를 꼭 깨물고 있거나, 잠을 잘 때 이를 갈거나, 한쪽에서만 음식을 씹거나, 입을 너무 자주 크게 벌리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턱관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턱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은 일단 망가지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턱관절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리한 충격으로부터 턱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그런 후에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스플린트라는 구강 내 장치 치료 등을 시행하며, 심한 근육통이나 근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社 說

‘임을 위한 행진곡’ 놓고 꿈수 부리는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본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의 논란과 관련, 이 곡이 기념식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지 본행사에서 이 곡을 합창단이 노래하는 ‘합창’ 방식으로 할지, 모든 행사 참석자가 ‘제창’ 방식으로 노래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주와 시민, 5월 단체, 여야 정치권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져 보훈처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5·18 기념식이 끝나면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곡을 제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을 지고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행사에서 제창해야 하고,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한복소리에도 꿈수를 부리고 있는 보훈처의 그릇된 행태는 그야말로 비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조차도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기념곡으로 굳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왜 곡본을 분열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이 행진곡은 5·18이 2003년 정부행사로 승격된 이후 2008년까지 본행사 때 공식 제창돼 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 2009년과 2010년에는 본행사에서 빠지고, 식전행사 때 합창단이 공연해 보훈처와 5월 단체가 기념식을 따로 치르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5월이 되면 곡본 분열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번부터 기념곡으로 지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의견수렴이 없는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박근혜 정부가 정 민주당부러면 이를 하루속히 수용해

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추모곡으로서 5·18 기념식장에서 담당하게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화재 주범 ‘샌드위치 패널’ 건축 규제될

지난 6일 광주 평동공단 내 한 보온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장 건물이 값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대형화재 때마다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니 안전 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화재로 업체 건물 2개 동이 전소됐고, 기차차 협력업체 공장 2개 동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업체 측은 제품과 자재를 비롯해 고가의 가공 설비 등을 고려했다면 피해 액수가 7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소된 공장 3개 동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불이 잘 투과하지 못하는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 안성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진화하는 데 걸림돌이 돼 막대한 피해를 불렀다. 샌드위치 패널은 외부에 스테인리스

스 등 두꺼운 철판 사이로 목재, 종이, 스티로폼 등 단일·방음재가 채워져 있다. 불이 나도 철판이 물집을 막고, 가연성이 높은 내부 자재의 열기는 방출되지 않아 진화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구조 변경이 쉬운데다 공사기간도 짧아 대부분의 공장이 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화재에서 보듯 불이 나면 신속무책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소방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건축법을 고치고, 소방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3000㎡ 이상 창고(자동차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나 1000㎡ 이상 공장에는 패널이 불에 타지 않는 난연(難燃)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패널 속에 스티로폼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예기다. 작은 규모로 나눠 짓는 편법도 막아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은 더 이상 안 된다.

기고

남도의 정과 여유 넘치는 한옥



이점관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남도의 정과 여유 넘치는 한옥

한 형식으로 존재해 왔다. 양반가옥인 기와집, 서민가옥인 초가집 그리고 산속의 너와 집, 섬지역의 투막집 등 신분과 기층나 재료에 따라 특색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한 한옥이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간이 되었으나,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급속히 쇠퇴하게 되어 지금은 기와집으로만 대변되고 있으며, 초가집과 너와집 등은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현대인들의 관심사인 친환경과 웰빙, 힐링의 여파로 전통 주거양식이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인 한옥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옥을 집단화한 전남의 행복마을이 우리 사회에 부각되면서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까닭인즉 사람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실문화의 발전되어온 한옥 또한 집의 재창조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적·사회적 공간이 공존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녹색의 땅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따뜻한 정과 여유 넘치는 한옥, 즉 행복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타시도에서까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전남의 한옥사업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서울의 북촌마을과 전주의 한옥마을이 역사경관 보존사업으로 기존의 것을 보존하는 차원이면, 우리의 한옥사업인 행복마을을 조성은 외면되고 사라져 버린 한옥문화를 다시금 되살려 현대인의 주거로 재창조하여 부흥시키는 적극적인 진취적인 것이라 하겠다.

도내 행복마을은 기존 98개 마을과 신규 26개 마을 등 현재까지 124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한옥 완공이 866동, 건립추진이 695동으로 지금까지 총 1561동의 한옥이 건축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 200개소 행복마을을 조성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복마을을 조성 이래 2012년까지 한옥민박과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총 48여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1/4분기 소득이 벌써 511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나 성장된 것은 “내 마을은 내가 주인이다”는 도민들의 주인 의식 함양과 “우리 모두 잘 살아 보자”는 훈훈한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 소득창출이 향상되면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외지에서 인구전입이 날로 늘어 72개 행복마을로 2086명이 새롭

게 동지를 틀었으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타시도에서 보내로 이주한 도시민만해도 올해 3월까지 9205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떠나야만 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행복마을로 바꾸어지면서 새롭게 동지를 틀고 자 희망하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땅값이 200%에서 500%까지 상승하여 이제 땅값을 못 오르게 막아야 하는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도 크지만 행복마을이 가야할 길도 아주 멀고, 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먼저 이 지역 영고기업인 한옥시공업체가 행복마을에서 명품 한옥을 짓고 한옥의 세계화를 선도하여 규약을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되도록 기업체를 지원, 한옥산업화에 앞장선다면 전남의 한옥산업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 한옥시공간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동안 단가 절감방안으로 모듈화, 표준화, 기계화 생산이 거론되어 왔다.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한옥 R&D의 결과물이 올해 7월쯤 나온다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동물복지 위해 가축 비명 사라진 도축장 돼야

동물 복지 이야기가 나온 건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다.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초기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는 추세라고 본다.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식용 가축이라 해도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비록 도축이 돼서 고기로 팔릴 때까지 정절환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는 것,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의 가축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 약한 것 같다. 참고로 독일 같은 유럽에서는 가축 계류장에 CCTV를 설치하여 종업원이 가축을 때리거나 전기봉을 사용하면 동물보호법에 위반 되게 만들어져 있다. 적법성 그 직원은 당연히 실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축에게

일종의 매질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재는 그마저도 동물복지를 위해하는 것이다.

몇 년 전 덴마크 육류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도축장에서 돼지를 때리고 전기봉을 사용하여 육류감량과 육질감소 부분이 1마리당 1만원이라고 발표한 적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도축 두수로 급해 보면 자그마치 1년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거기에 수송도중에 발생하는 부분까지 감

안하면 막대한 금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도 스트레스 받은 육류(육즙이 빠진 딱딱한 고기)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제주도 공공장은 계류장에 자동물이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봉 사용이 필요 없게 되어 고기육질이 좋아지고 또 덤으로 근로자들도 돼지 비명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시범장 삼아 우리도 동물복지 부분에 더 선진국이 되어갔으면 한다.

▲노동계·광주시 북구 사호동

無 等 鼓

#세계적 가수로 발돋움 한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후속곡 ‘젠블맨’의 빌보드 차트 1위 진입을 위해 미국에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싸이는 지난 3일 뉴욕 맨해튼 록펠러 플라자에 마련된 NBC TV ‘투데이 쇼’ 무대에서 ‘젠블맨’과 ‘강남스타일’을 선보였으며 6일 오전 ABC방송사 간판 프로그램 ‘라이브! 위드 켈리& 마이클’ 생방송에 출연했다. 또 9일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K팝과 인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각각 화력과 안정된 선반질진료로 개막 후부터 1~2위를 오르내리며 우승 후보로 꼽히는 KIA 타이거즈가 원년 최고 인기 규약을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되도록 기업체를 지원, 한옥산업화에 앞장선다면 전남의 한옥산업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 한옥시공간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동안 단가 절감방안으로 모듈화, 표준화, 기계화 생산이 거론되어 왔다.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한옥 R&D의 결과물이 올해 7월쯤 나온다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통령은 취임 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 흥행과는 먼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게 흥행이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다.

민주당은 최근 새 대표에 비주류인 김천경 후보를 선출하며 대대적인 당내 세력교체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광우·전남 등 호남 정치권 인사가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지나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도와 주류에게 물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호남 정치권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던 호남 정치권이 당 지

도부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마저 걱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역 정치권이 초심으로 돌아가 환골탈태하는 길만이 실패를 회피하고 역량을 결집시켜 흥행물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나는 정치철 펼쳐 때 민초들은 살 맛이 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